

국경 없는 무역환경에서 먼저 갖춰야 할 것이 차별화된 기술(Technology)이고, 그 기술을 활용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의 생산(Production), 그리고 기업의 궁극적 목적인 이윤을 달성시키는 마케팅(Marketing)이 결부돼야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2008년, 벤처의 미래가 있습니다.”

— “기술(Technology), 생산(Production), 마케팅(Marketing)의 3가지 산을 순차적으로 넘어야 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은 300만개, 고용은 1천77만 명으로 전체고용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한국의 벤처 생태계는 지난 1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고부가가치 혁신형 중소기업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데 성공했다. 우리나라 벤처 기업수가 사상 최고인 1만 3천개를 넘고 있고, 매출규모 1,000억 원을 넘어선 벤처기업이 3년 전 불과 60여개에서 2007년에는 100개가 넘어서는 등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벤처기업의 이런 성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벤처투자의 수익률이 더욱 높아지고 투자, 성장, 회수의 선순환 사이클이 역동적으로 조성되고 우수인력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의 슈퍼A급 인재가 경력대안으로 벤처창업에 참여할 때 혁신지향 기업이 정신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경영환경은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및, FTA 등으로 인해 지역간 경제 연대가 강화되고, 산업간, 지역간 경계가 점차 사라지면서 글로벌 경제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간 무역역 및 규모가 증가하면서 해당국가간 이해가 첨예해짐에 따라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장벽을 포함하여 수출입 기벌공고 등의 비관세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Technology), 생산(Production), 마케팅(Marketing)의 3가지 산을 순차적으로 넘어야 한다. 1단계로 기업은 풍부한 정보, 인력, 자금을 투입하여 기술 혁신을 이루어 기술의 산을 넘어야 하고, 2단계로 입지, 원자재, 디자인 등 생산의 6요소를 구축하여 생산의 산을 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술과 생산의 바탕 위에 마케팅의 산을 넘어야 기업의 목표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2007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수출액이 1,000억불 시대를 연 것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중요한 요소가 상호 작용한다. 이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CEO의 경영습관

일 것이다. CEO는 항상 인터넷 및 서적을 통해 정보를 많이 접하면서 지식 경영 노하우를 습득하고, 업무에 있어서 시간계획을 세우고 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특히 이론적인 마케팅 기법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시장의 정세를 읽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우리 중진공은 성장하는 CEO를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 컨설팅 어드바이저로 변신했다. 중소기업을 최고의 고객으로 여기고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으로 나가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다 현장밀착형 지원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비즈메이트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역본부·전 직원이 참여하는 현장위주 임무 수행을 강조해 왔으며, 특히 중진공에 재직중인 변호사 4명과 회계사가 18명을 활용하여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회계·특허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FTA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사업전환 지원사업·무역조정지원사업 등의 신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벤처기업은 끊임없는 연구개발 노력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아내야 한다. 중진공에서는 2008년에도 중소기업의 CTO(Chief Technology Officer)를 대상으로 기술혁신 및 사업화전략에 관련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신성장동력 산업을 창출하고 경제발전의 핵심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2008년, 벤처생태계도 새 모습으로 더욱 발전하여 글로벌기업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2008. 01. 01.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CEO

이승도